

美軍政期 濟州教育(I)

梁 鎭 健*

차 례

1. 序 言
2. 美軍政의 出發과 教育措置
3. 美軍政期 濟州教育
4. 結 言

1. 序 言

1945년 8월 15일, 연합국에 의한 조국해방으로 한국의 현대사는 막이 올랐다. 미·소 양대강국에 의한 한반도 분단이라는 결과를 초래한 해방은 결국 한국민족에게 환희와 비통을 함께 교차시켜준 일대 역사적 사건으로 결론 지워졌다. 정부수립이 될 때까지의 사회적 혼란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것이었으나 결국 해방한국에 부과된 민주국가 건설이라는 지상과제를 달성하기까지는 민족의 자율성과 아울러 타율적인 국제관계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다. 소위 美軍政期¹⁾라고 불리는 1945년 8월 15일에서 1948년 8월 15일까

* 제주대학교 교직과 교수

1) 美軍政期라고 하면 의미상으로 민간정부가 공존하였을 것 같은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으며 무엇보다 미군에 의한 직접통치의 의미가 희석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대신 美軍占領時代라고 쓰자는 주장도 있다.(오옥환·최정실, 『미군 점령시대의 한국교육』, 지식산업사, 1993. 참조) 그러나 전쟁이나 사변 때에 점령한 지역의 군사령관이 임시로 행하는 행정이라는 의미의 軍政이라는 용어에는 이미 점령(occupation)이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는 뜻에서 필자는 미군정기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자 한다.

지 3년이 바로 그런 시기였다.

미군정기는 “군정법령을 통하여 일본의 군국주의적 식민지적 사상과 형태를 불식시키고 해방된 한국을 민주화시키려는 미군에 의한 직접 통치”가 이루어진 시기였기 때문에 문교행정에 관하여 미군의 관여는 당연한 이치였다. 미군의 관여는 학무국의 설치와 함께 자문기관인 한국교육위원회와 중앙교육계획위원회를 상설기관으로 두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이로부터 일제의 구체제에서 탈피하고 민주사회 건설에 부합된 교육의 새로운 방향과 제도를 모색하는 노력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에 어떤 방식으로든 미군의 관여가 있었다는 점에서 미군정기의 교육정책은 일정한 한계가 있었다.

다른 한편으로 이 시기는 혼란한 사회질서 가운데서도 국가건설이라는 대명제하에 광범위한 教育再建運動이 있었으며 그것은 교육이념의 탐색과 제도의 정착으로 나타나기도 했고 제주도에서는 학교설립이나 학교운영에 있어 자치적인 노력이 경주되었다. 특히 本稿에서는 미군정기간에 미국의 영향을 받아 이룩된 제주도 교육의 제도적 성격과 함께 교육재건을 위해 경주되었던 제주도 교육의 자치적 성격을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美軍政의 出發과 教育措置

일제 36년의 질곡에서의 해방을 맞은 우리 민족은 국제정세 전반에 걸친 미소냉전의 강화와 민족의 주체역량의 결집 실패로 分斷時代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본질적으로 미국주도의 자본주의 시장 확대와 공산주의에 대한 방벽을 쌓을 수 있는, 미국에 우호적인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의도로 1945년 9월 7일 남한에 진주한 미군은 布告令 1호와 2호를 발령하면서 38선以南의 군정통치를 시작하였다. 이렇게 시작된 미군정기는 교육분야에서 특히 교육이념, 교육제도, 교육과정, 교육방법, 교육자치제 등을 규정하게 되었다.

미군정 당국은 A.B.아놀드 군정장관을 중심으로 행정기구를 조직하기 시작했

고 교육부문에서는 E.L.라카드 대위가 책임자로 임명되었다. 군정 당국은 9월 14일 일제의 중앙청 학무국을 접수하고 당면한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9월 16일 일반명령 제4호로 긴급조치 「新朝鮮人の 朝鮮人을 위한 教育方針」을 내림으로써 교육재건을 위한 조치들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시작하였는데 이 방침의 주된 내용으로는 9월 24일까지 모든 공립초등학교의 재개를 지시했고 사립 초등학교의 경우는 당국의 허가를 받은 후에 개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조치들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朝鮮教育委員會」(The Korean Committee on Education)²⁾와 朝鮮教育審議會(National Committee on Educational Planning)³⁾ 같은 자문기관이 설치되었는데 전자는 주로 휴교상태에 있던 학교의 개교를 비롯하여 교육운영의 정상화를 위한 단기적 시책을 다루었고 후자는 장기적 안목에서 한국교육의 재건을 위한 기본방향을 심의하였다.

해방은 되었지만 사회의 식민지적 구조는 변함이 없었기 때문에 교육적 실행이 순조롭지 못하여 교육의 빈곤이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빈곤에 대하여 미국은 교육원조 정책으로 그 해결을 돕고자 하였는데 그 표면적 의도는 교육의 자본주의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지만 이면에는 그러한 정책을 통하여 새로운 정치, 경제, 문화적 종속을 이루려는 의도가 내재하고 있었다. 소위 교육에 있어서 新식민주의적 지배방식의 등장이 그것이다.

비교적 긍정적인 측면에서 미국식 교육이 한국의 교육제도와 교육행정에 영향을 미친 구체적 사실을 보면 첫째 6·3·3·4 학제의 도입, 둘째 교육자치제의 발족, 셋째 교사양성과 현직훈련제도, 넷째 교육기회의 확충과 균등화, 다섯째 교육행정방식의 근대화, 여섯째 교육내용의 개편, 일곱째 새로운 교수방법과 기술의 도입, 여덟째 교육시설의 복구와 재정지원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⁴⁾ 뿐만 아니라 반공의 보루를 형성키 위해 교원 재교육을 시키는 것도 논리

2) 1945년 9월 16일 7인으로 구성. 발족하였으며 그 후 4명이 추가되어 모두 11명으로 구성되었고 1946년 5월 까지 활동하였다.

3) 1945년 11월 14일에 활동을 개시하여 1946년 3월 7일까지 활동하였는데 10개의 분과에 걸쳐 100여명이 참여, 105회의 분과위원회와 20회의 전체회의를 가졌다.

4) 金鐘喆, 「韓國의 敎員制度와 教育行政에 미친 美國文化의 影響」, 『亞細亞研究』, 高麗大學校 亞細亞研究所, 1967. p.3.

의 필연이었으며 이로써 한국의 교육에 있어서 미국의 선례가 참고가 되고 표본이 되어 미국은 한국교육의 준거집단(reference group)이 되었던 것이다.

3. 美軍政期 濟州教育

제주도에는 1945년 9월 28일 미군 1개연대가 주둔하게 되면서 제주도 주재 美軍政廳이 개설되었는데 그러나 미군정이 라우렐 대령의 제59연대를 제주도에 주둔시켜 실질적인 통치기능을 시작한 것은 10월 중순이었다. 특히 제주도는 1946년 8월 1일 그간의 전라남도 행정 소속에서 벗어나 도제로 행정기구가 개편됨에 따라 교육행정이 격상되는 기회를 맞게 된다.

즉, 전라남도의 학무행정 편제에 소속되어 있던 제주도 교육행정은 도제의 행정기구가 발족되자 총무국, 학무과 체제로 그리고 양군은 내무과, 학무계의 체제를 갖추게 됨으로써 교육행정에 대한 체계성을 확보하게 되었던 것이다. 미군정이 도제승격을 수용한 데에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지만 효과적으로 미국식 교육을 관철시키려는 의도와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다. 도제 실시와 관련해 당시의 기구를 표로 정리해보면 다음 페이지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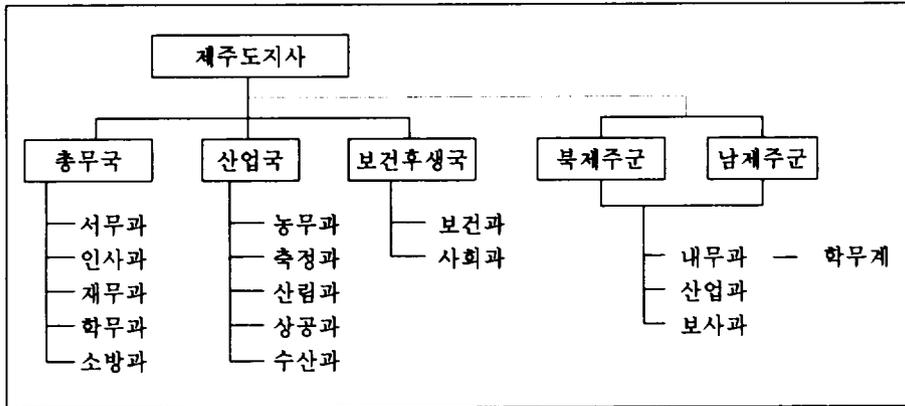
1) 教育施設

A. 國民學校

미군정기 동안 제주도에서 가장 특이했던 교육현상은 학교설립이 치열하게 전개되었다는 것인데 특히 초등학교 설립이 그 대세를 이루었다. 1947년 1월 26일 도총무국장이었던 金斗鉉의 발표에 의하자면 도승격전 그러니까 1946년 8월 이전에는 제주도의 국민학교 수가 50교였으며 취학아동수가 2만명 정도에 불과하였으나 1947년 1월 현재 국민학교 수는 95개교이며 취학아동수가 3만8천여명에 달하고 있다⁵⁾고 하였다.

5) 『濟州新報』, 제148호, 1947.1.26.

1946年 濟州道 機構表



해방당시 국민학교 수가 44개교였던 것으로 미루어 볼 때 46년 8월 이전까지는 불과 6개교밖에 설립이 안 되었었지만 47년 1월까지, 그러니까 약 5개월여 동안에 무려 45개교가 설립되었다는 말이되는데 이는 참으로 놀라운 일일 수밖에 없다. 당시 제주도의 인구가 전체에 걸쳐 25만 미만이고 가구 수도 근 5만 정도에 불과하였던 점으로 미루어 민간인들의 자발적인 증력에 의하여 이렇게 많은 수의 학교가 설립되었다는 것은 보기도문 일이었다. 1947년 6월 현재 도학무국 발표⁶⁾에 의하면 초등학교 졸업예정자수는 남자가 2,383명, 여자가 530명이었다.

그런데 학교설립이라는 것이 기반시설들을 완비한 후에 개교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문제점도 적지 않았다. 예를들면 동국민학교의 경우는 일본군들이 쓰던 창고를 임시교사로 썼기 때문에 겨울철이면 학생들이 겪는 고초가 말이 아니었다. 이러한 상황을 두고 도내 신문은 『엄동설한에 가교사에서 떠는 동국민학교 아동들의 참상, 꿈의 교사신축은 언제면 ?』⁷⁾이라고 머리 기사를 힐난조로 썼다.

제주 동국민학교가 당시 도내에서 유일하게 校舍가 없던 학교였던 관계로

6) 『濟州新報』, 제205호, 1947.6.6.

7) 『濟州新報』, 제276호, 1947.12.20.

국민학교 설립상황

연도	학 교
1945	제남교, 신촌교, 평대교, 봉개교
1946	더럭교, 남읍교, 광금교, 수원교, 판포교 도리교, 신창교, 용수교, 저청, 신도교 덕수교, 서광교, 오라교, 창천교, 대평교 강정교, 법환교, 토평교, 보목교, 하예교 신예교, 태흥교, 홍산교, 화산교, 가시교 신산교, 온평교, 풍천교, 수산교
1947	시흥교,

교사신축을 위해 제주읍내 5개리 주민들에게 의무적으로 후원금이 1947년 5월에 할당되어 동년 6월말까지 완납해주기를 바랬지만 동년 12월 중순까지 10여만원 정도밖에는 걷지를 못해 각 구장들 앞으로 후원금을 납입해주기를 독촉하기도 했었다. 이와 더불어 제주 동국민학교 건축기성회도 발족되어 『개인 사업을 희생하여서라도 본 사업을 추진시켜야』⁸⁾ 한다는 각오 하에 활동에 들어 갔다.

1946년 11월에 설립 인가를 받은 남제주군 성산읍 온평리 온평국민학교의 경우는 당시 학교운영이 어려웠던 시기이므로 후원회에서 해외나 육지부에 나가 있는 마을출신 사람들에게 모금을 하였지만 책·결상을 마련하는 정도였고 따라서 마을 주민들이 나섰는데 이때 만들어진 것이 소위 ‘학교바당’이라는 것이었다. 원래 온평리 해안가는 상당히 길었는데 양쪽 경계인 신산리와 신양리 사이를 공유화하여 마을에서 관리하고 있었다.

그 당시는 미역값이 상당히 좋았으므로 여기서 미역을 캐서 1/2을 해녀들이 갖고 1/2은 마을의 경비로 써오다가 후원회 임원들이 상의하여 1/2을 학교의 운영경비로 제공을 했으나 경비가 모자라자 양쪽 경계에서 나오는 수입

8) 『濟州新報』, 제292호, 1948.2.6. 기성회는 제주동교는 종래 제주읍내 5개리 아동을 전적으로 수용하여 왔고 또 수용할 의무를 가진 제주북교의 연장이기 때문에 시민 전부가 의무적으로 건설할 책임이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었다.

전부를 학교에 헌납하였던 것이다. 해녀들은 미역을 캐서 관리를 하고 그 금액을 학교 운영비로 사용하였는데 당시 온평리 미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품질이 좋았기 때문에 값을 많이 받을 수 있었다. 학교가 정상궤도에 오르기까지 온평리 해녀들의 공로는 대단한 것으로서 다른 지역에서는 결코 찾아볼 수 없는 후원회의 진정한 모습이기도 하였다. 온평국민학교에서는 그 뜻을 기리기 위해 해녀공로비를 세우기도 했다.⁹⁾

그런가 하면 함덕국민학교의 경우는 자녀교육에 열성적인 마을주민들이 기금을 모아 1946년 6월부터 교사신축을 하였는데 1년여의 공사 끝에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서 1947년 4월 5일 붕괴되어 버렸던 애석한 사건¹⁰⁾도 있었다. 이 사건으로 지붕에 기와 덮는 일을 돕고있었던 학생 7명이 다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웃 신촌국민학교와 후원회 등에서 재건동정금 등을 기탁, 격려를 아끼지 않았던 점을 볼 때 해방 후의 교육운동이라는 것이 이렇듯 전도적인 후원에 그 기반을 두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함덕국민학교는 다시 힘을 기울여 5개 교실을 증축하게 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1947년 10월 20일에는 교사낙성식 축하 가을운동을 성대히 개최하게 된다.¹¹⁾

교실을 증축하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운동회를 개최했던 예는 많은데 서귀포의 신흥국민학교 역시 1000여명의 마을주민들이 운집한 가운데 증축 축하운동을 1947년 11월 4일 거행했었다.¹²⁾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학교설립이나 교실증축 같은 것이 주민들의 집단적인 연대성 속에 가능했으며 따라서 이러한 전통은 교육사적인 측면에서 볼 때 자기들 자신의 손으로 학교를 세우고 운영하려는 독립학교 정신과 깊은 연관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이다.

비교적 상황이 나았던 제주 북국민학교 역시 문제가 있기는 마찬가지였는데 1948년 2월 현재 제주 북국민학교는 3000여명의 재학생에 33학급 규모였지만 교실은 19개 밖에 없어 2부제 수업으로 겨우 버티는 실정이었다. 이를

9) 한림화, 『제주바다의四季』, 서울:한길사, 1987, pp.23-24.

10) 『濟州新報』, 제181호, 1947.4.12.

11) 『濟州新報』, 제262호, 1947.10.26.

12) 『濟州新報』, 제266호, 1947.11.8.

해결하기 위해 교장실은 물론 창고까지도 교실로 개조하였고 모자란 교실 가운데 우선 2개를 증축하기 위해 후원회를 통해 천원에서 만원까지 자진 기부토록 했는가 하면 학부모들도 일인당 오백원씩 부담하기로 학부모회의에서 결정, 교사증축에 동참하였는데 박봉에 시달리는 교사들까지도 한 사람당 천원씩 회사를 하였다. 이를 토대로 130만원의 교사증축 예산이 편성되었다.¹³⁾

또다른 문제로는 많은 학교가 설립이 되었던 관계로 취학적령기 아동들을 전부 수용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취학율이 50 %에 불과했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미취학율이 46 %를 상회할 만큼 취학학생이 떨어지자 1947년 5월 10일 급거 도지사 주재로 제주 북국민학교 강당에서 초중등교장회의가 열려 「就學度の 고양문제」를 토의하고 각 學區 교장의 책임하에 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지시가 내려지기도 하였다.¹⁴⁾

해방후 학교운동이 가속화되고 결실을 볼 수 있었던 저변에는 10만이 넘는 제주도 출신의 재일동포와 타시도에 진출한 제주인들의 후원에 힘입은 바가 컸다. 화북국민학교의 경우는 교사증축을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결실을 보지 못하다가 일본에 거주하는 화북출신들이 130만원이라는 거금을 보내주어¹⁵⁾ 그것을 기반으로 하여 기금조성을 도모한 끝에 광주의 東邦工榮會社와의 교사증축 계약금인 360만원과 기타 교육시설 구입비를 합쳐 약 420만원 정도의 교사증축 예산을 편성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학교설립운동에서 나타나는 제주인들의 교육열은 역사적으로 볼 때는 전통적인 제주 교육의 주체력을 승계한 것이며 당대 해방공간의 자치의식을 반영하는 민족주의 교육운동의 핵심 내용이기도 했다. 해방공간의 자치의식은 그 성격상 좌우연합적이었으며 궁극적으로 민족의식을 드높이는 근원으로 작용하였던 요소가 다분하였다. 이러한 성격 때문에 때로 학생들의 양식은 미군정이 일제와 동일한 제국주의 점령세력이라는 인식하에 미군정의 점령정책과 불가피하게 대치하는 형식을 띠기도 했다.

13) 『濟州新報』, 293호, 1948.2.8.

14) 『濟州新報』, 194호, 1947.5.10.

15) 『濟州新報』, 254호, 1947.10.6.

이러한 대치구조는 육지부도 마찬가지로여서 국대안반대운동으로 표출되기도 했고 제주도에서도 '양과자 먹지 말기 운동' 같은 것을 통해 미군정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켜 나가기도 하였다. 특히 양과자 먹지 말기 운동은 제주도 중등학교 연맹의 주도 아래 1947년 2월 10일 『조선의 식민지화는 양과자로부터 막자』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제농, 오중, 제중, 교양(교원양성소) 등 천여명이 넘는 학생들의 대대적인 시위가 전개되기도 하였다.¹⁶⁾

B. 中等學校

(1) 公立中等學校

초등학교 설립 열기 못지않게 중등학교 설립운동도 만만치 않았는데 도총무국장 金斗鉉의 발표에 의하자면 중등교육의 경우 도 승격전 제주도에는 농업학교 1개교뿐으로서 취학 생도수도 3백여명에 불과하였으나 1947년 1월 현재에는 농업학교에 고등과가 설치되고 대정공립초급중학교와 서귀공립초급중학교가 신설되었으며 사립으로 오현초급중학교와 제주초급중학교가 인가되어 취학 생도수가 3천6백여명에 달하고 있으며 사설학술강습소도 10여개소에 달하고 있다¹⁷⁾고 하였다. 1947년 6월 현재 도학무과 발표¹⁸⁾에 의하자면 초급중학교 졸업예정자수가 남자가 612명, 여자가 50명이었다.

제주도에 있어서 중등학교의 태동은 이미 한말 개화기에서 부터 비롯되었는데 1907년 사립의신학교를 모체로 하여 1912년 제주공립간이농업학교로 개편되면서 제주도 유일의 중등교육기관이자 농업교육의 본산으로 오랜 전통을 유지하고 있었던 현재의 제주농업고등학교가 그것이다. 원래 일제식민지하에서는 '민도에 맞는 교육'을 실시한다는 정책목표 아래 각급학교 교육을 제한하는 조치로 제주도에도 농업교육이 실시되었던 것인데 해방당시는 제주공립 농업학교로서 4년제(4학급)였으며 1946년 9월 학제변경으로 6년제 제주공립 농업중학교로 개편, 농업과, 축산과 2개과, 12학급으로 제주도 유일의 고급실업

16) 『濟州新報』, 제155호, 1947.2.10.

17) 『濟州新報』, 제148호, 1947.1.26.

18) 『濟州新報』, 제205호, 1947.6.6.

중학교가 되었으며 48년 6월에는 학칙변경을 통하여 농업과 12학급, 축산과 6학급 계 18학급, 1700명의 인가를 받았다.

이러 서귀공립초급중학교, 애월공립초급중학교, 한림수산초급중학교, 대정공립초급중학교, 성산공립초급중학교가 설립되는데 후일 이들은 모두 초급실업중학교 체제로 개편된다. 서귀초급중학교는 1936년 5월에 개설되었던 1년제의 제주도공립실수학교를 모체로 출발하여 1946년 10월 정규학교로 승격되면서 서귀공립초급중학교로 개편되었던 것이지만 1950년 4월 다시 학칙이 개정되면서 4년제 서귀공립농업중학교로 개편, 농업과를 설치하게 되었던 것이다.

대정초급중학교는 1946년 9월에 설립인가를 받았고 1950년 4월에 공립농업중학교로 개편되었는데 그 과정을 보면 미군정기간의 제주도 중등학교 설립의 성격을 알 수 있다. 해방이 되자 일본인들이 남기고 간 대촌병사 건물을 토대로 1945년 말경부터 기성회를 조직, 각 마을에서 500원에서 1000원씩 약 8, 9개월 모금을 했었다. 교사로는 대정국민학교에 있던 강달훈을 출발로 수학담당에 이태식, 물리, 화학에 이경선 등이 담당하였다. 특히 이경선은 동덕여학교를 거쳐 일본 고베 약전을 졸업한 당시 여자로서는 대단한 인텔리였다. 이경선의 남편은 음악율, 후일 4·3의 좌익계 주도자였던 김달삼은 역사를 담당했다.

朴景勳 도지사가 1946년 9월 개교식에 축사를 하러 왔을 때 공립으로 인가해줄 것을 부탁하여, 인가를 위한 기금 100만원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그동안 모금했던 돈을 합쳐 100만원을 만들어 金仁志 학무과장에게 제출함으로써 공립으로 인가를 받게 되었던 것이다. 공립으로 인가됨에 따라 교장 선출이 문제가 되었고 종내는 이경선의 부친이 되는 이도일을 임명하였다.¹⁹⁾ 1947년 11월 8일에는 창립 1주년 기념으로 추계운동회를 개최하기도 했었다. 그 후 1948년 4, 5월경 총파업이 지령되자 학교가 폐업되는 등 해방후의 정치적 우여곡절을 겪게 된다.

애월초급중학교는 1946년 1월에 1년제로 개설된 애월중학원을 발판으로

19) 제주4·3연구소, 『4·3長征』, 1990. pp.81-82.

1947년 7월에 초급중학교 인가를 받았으며 1950년 4월 공립농업중학교로 개편되었다. 애월초급중학교는 학생들을 모집하기 위하여 신문에 광고²⁰⁾를 내는 등 매우 특이한 방법을 활용하였는데 당시 광고란에 신입생을 약 70명 모집하는데 원서접수는 8월 19일까지이며 시험은 8월 21일, 22일 이틀간이라고 하였으며 아울러 2, 3학년 편입생도 받는다고 선전하였다. 김녕초급중학교도 마찬가지로 1946년 9월 개설되었던 김녕중학원에서 개편되어 애월중학교와 같은 날에 초급중학교 인가를 받았고 같은 농업중학교 체제로 개편된다. 성산초급중학교 경우는 1947년 개설된 성산중학원을 모체로 1949년 9월 인가를 받았는데 역시 1950년 4월 공립수산중학교로 개편되었다.

한림수산초급중학교²¹⁾는 1947년 12월 인가를 받았는데 원래 한림에는 1946년에 인민위원회측이 한림 남국민학교를 인수하여 개설한 한림중학원이 있는 했지만 수산초급중학교는 그와는 독자적으로 설립되었다. 따라서 교실 사정이 여의치 못하여 후일 한림중학원을 합병하게 되면서 여유를 갖게되기까지는 읍사무소 창고와 협신공장 창고를 이용하여 수업이 진행되었다.

원래 한림리 측에서는 기존의 중학원을 토대로 제주도 유일의 공립종합중학교를 설립하기 위해 600만원의 기금 조성을 목표로 기성회를 조직하였고 종합중학교에는 인문과와 수산과를 설치하고 수산과 안에 어로과와 제조과를 둘 예정이었다.²²⁾ 이러한 노력은 제주도의 특수한 사정을 감안 수산학교를 설치코자 하였던 제주도 당국의 이해²³⁾와도 일치되는 일이었다.

수산초급중학교 인가를 받아내기까지 한림 주민들의 로비활동은 매우 광범위하게 전개되었던 것으로 전해지는데 당시 서귀포나 성산도 마찬가지로 여서 다른 지역보다 한림이 수산학교가 설치되어야 하는 이유를 피력하기 위해 수

20) 『濟州新報』, 제232호, 1947.8.6.

21) 이하 한림 출신의 고종석씨와의 면담을 토대로 하였다. 면담 결과 『濟州教育史』(1979)와 상이한 점 몇 가지를 발견할 수 있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한림중학원-한림초급중학교-한림수산초급중학교로 변모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애초 한림수산초급중학교로 출발하였고 그것은 한림중학원과는 별개의 것이었으며 또한 중학원이 좌익진영에 의해 주도되었다면 수산중학교는 우익 진영의 노력을 대표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증명되었다.

22) 『濟州新報』, 제266호, 1947.11.8.

23) 『濟州新報』, 제148호, 1947.1.26.

산통계를 제출하는²⁴⁾ 등 각종 노력을 경주했다. 결과 김두현 총무국장은 서울 출장에서 수산초급중학교 인가를 받아오게 된다.²⁵⁾

미군정 당시 실업계 학교체제는 3년제의 초급실업중학교와 6년제의 고급실업중학교로 대별되어 있었는데 제주도에서는 제주공립농업중학교만이 유일한 고급실업중학교였으며 초급실업중학교로는 1947년 12월에 한림수산초급중학교가 설립되었고 성산공립수산중학교가 1949년 9월에, 그리고 서귀공립농업중학교, 애월공립농업중학교, 김녕농업중학교 그리고 대정공립농업중학교가 각각 1950년 4월에 설립된 셈이었다.

1947년 5월 7일에 도지사 주재로 개최되었던 초중등학교 교장회의에서 실업교육 진흥문제와 관련한 논의가 있었는데 실업학교와 보통중학교를 6 : 4 비율로 개편하라²⁶⁾는 지시가 있었다. 이러한 조치를 바탕으로 도내의 여러 초급중학교가 농업 또는 수산중학교 같은 실업학교 체제로 개편되었던 것이다.

해방후 제주도의 중등교육을 위해 결성되었던 최초의 단체로는 제농고실승격기성동맹과 제주도공립중학설립기성회가 발전적으로 해체되면서 결성된 중등교육사업협회로서 동협회는 1947년 1월 10일 제주읍사무소 회의실에서 결성되었다.²⁷⁾ 이 단체는 교육시설 확충을 위해 일차사업으로 우선 제주공립중학교 신설기금과 제주농교확충기금을 500만원 목표로 모집에 노력하였는데 우선 34만원을 조성하게 된다.²⁸⁾

중등교육사업협회는 특히 제주공립중학교 설치에 적극적인 의욕을 보여 모금운동을 계속 확대시켜 나감으로써 짧은 시간에 1,503,000원이라는 거액을 모금²⁹⁾하게 되고 또한 얼마 안가 2,000,000원을 돌파³⁰⁾하게 된다. 이러한 사실만을 미루어 보더라도 중등교육에 대한 주민들의 호응이 상당히 고양되어 있

24) 수산통계는 고종석씨에 의해 도지사에게 전달되었다고 하는데 어획고가 다른 지역보다 앞서 있었다고 하였다.

25) 『濟州新報』, 제276호, 1947.12.20.

26) 『濟州新報』, 제194호, 1947.5.10.

27) 『濟州新報』, 제147호, 1947.1.22.

28) 『濟州新報』, 제190호, 1947.4.30.

29) 『濟州新報』, 제222호, 1947.7.14.

30) 『濟州新報』, 제223호, 1947.7.16.

있음을 알 수 있다.

(2) 私立中等學校

사립중등학교로는 1946년 2월 10일에 설립된 제주고등여학교 그리고 1946년 10월 22일 설립된 오현초급중학교, 1946년 12월 1일 설립인가 받은 제주초급중학교 등이 그 대표적이다. 4년제로 개교한 제주고등여학교는 1947년 5월 12일 학제개편에 따라 제주초급여자중학교로 개칭 인가되어 4학급으로 운영되었다. 제주초급여자중학교는 1947년 6월 2일 고등과 설치를 요구하면서 동맹휴학³¹⁾에 들어가기도 했었는데 이런 경우는 매우 드문 일이었다. 1947년 7월 15일에는 이 학교의 공식적인 제1회 수료식이 64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거행되었다. 제주초급중학교는 제주향교가 주축이 되어 1945년 12월 1일에 설립한 제주중학원을 개편한 것으로서 제주향교의 자산을 그 기반으로 출발한 학교였다는 점에서 특이한 경우였다. 제1회 수료식이 1947년 7월 17일 54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거행되었다.

오현초급중학교 경우는 해방 후 濟州北國民學校에서 영어강습을 실시하던 로고스會員들이 중심이 되어 1945년 12월 1일에 설립한 3년제 濟州第一中學院이 모태였는데 1946년 오현초급중학교로 개편될 당시 학생수는 1학년 주간 39명 야간 35명 그리고 2학년 주간 103명 야간 35명, 3학년 주간 123명 야간 35명이었다.

1946년 12월 중순경부터 오현중학교는 同盟休學事件에 휘말려 들었는데 학생연극 공연 문제로 인한 사제간의 의견충돌을 발단으로 '과소적 교육 절대 반대' 등 4개조의 요구조건을 제시하고 동맹휴학에 들어갔던 것이다. 이 사건으로 당시 교감을 맡고 있던 梁明律과 교사 文泰午가 사의를 표함에 따라 일단 사태는 한달여 만에 수습되는데³²⁾ 이 사건은 당대의 어수선했던 교육환경을 단적으로 예증함과 동시에 끝이어서 닥칠 난관을 시사했다는 점에서 주목되

31) 『濟州新報』, 제205호, 1947.6.6. 그런데 고등과 설치는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했던 것처럼 보인다.

32) 『濟州新報』, 제147호, 1947.1.22.
『濟州新報』, 제148호, 1947.1.26.

는 일이었다.

그런데 당시 오현중학교의 인가는 정식으로 1학년밖에는 되어있지를 않아 盟休事件 와중에 2, 3학년 폐지문제가 거론됨으로써 道總務局長의 해명에도 관계없이 盟休事件을 해결하기 위한 방책이지 않는가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 인가가 없는 2, 3학년은 따라서 인가수속을 완료할 때까지 學術講習所 형식으로 머물 수밖에 없었으며 道學務當局에서는 하루빨리 인가수속이 되지 않으면 2, 3학년을 폐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었다.³³⁾ 당시 2, 3학년의 인가수속에는 3백만원의 기본 적립금이 필요하였는데³⁴⁾ 학교측에서는 기금의 출처에 일정한 복안이 없었기도 했거니와 더욱이 盟休事件은 그러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었던 것이다

C. 學校設立의 例

(1) 下貴中學院

제주도의 중등학교 설립운동은 전도적이어서 오히려 하귀중학원이나 조천중학원 등을 통해 그 운동의 치열함을 읽어낼 수 있다. 하귀중학원³⁵⁾은 해방과 동시에 高昌玉 등의 주동으로 1945년 11월 인가를 받지 않고 개교하였는데 이후 학교운영에 애월면 특히 동귀리 주민들의 관심은 매우 각별하였던 것 같다. 학교 운동장 부지로 주민들 소유의 밭을 내놓았으며, 시설확장을 하고 정식인가를 얻기 위해 마을유지들이 발벗고 나섰고³⁶⁾ 그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면민대회를 개최하였으며³⁷⁾ 특히 금덕리의 姜朝元은 중학교 설립기금으로 자신의 토지를 하귀중학설립기성회에 회사하기도 하였다.³⁸⁾

한 학년에 1개 반 그리고 학년당 50여명 수준으로, 1학년은 가문동 동민관에서, 2학년은 현 농협창고 자리인 동귀리 리민관에서, 3학년은 현 귀일교회 자리인 미수동 공회당에서 분산 수업을 실시하였다. 대상 학생들은 하귀지역

33) 『濟州新報』, 제147호, 1947.1.22.

34) 『濟州新報』, 제148호, 1947.1.26.

35) 이하 제주4·3연구소, 『이제사 말행수다.2』, 서울:한울, 1989, pp.108-131. 참조.

36) 『濟州新報』, 제228호, 1947.7.28.

37) 『濟州新報』, 제266호, 1947.11.8.

38) 『濟州新報』, 제275호, 1947.12.18.

을 중심으로 신업, 구업, 고성, 광령, 수산, 이호 등에서 왔는데 나이가 초과하여 다른 학교에는 진학을 못하게 되자 제주시나 멀리 대정에서 찾아온 학생들도 더러 있었다.

中자가 새겨진 모표도 있었으며 교과는 국어, 한문, 영어, 대수, 물리, 화학, 사회, 음악과 함께 보건 등이 가르쳐졌는데 10여명의 교사에게 일인당 두 과목 정도 분담되고 있었다. 교재는 프린트물로 교사들이 그날 그날 배울 것을 등사해서 주면 그것을 철하여 교재 대용으로 사용하였다. 시험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치루었으며 그밖에 전도 체육대회의 축구경기 참가라든가 수학여행과 비슷한 1박 2일의 도일주 활동 그리고 씨클활동도 있었다.

이같은 정황으로 미루어 보건대 하귀중학원은 그 형식과 내용이 비교적 충실했었던 같으며 이러한 활력을 바탕으로 48년 4월 2일에 趙鼎九 등이 재단을 설립, 하귀중학원을 인수하여 단국중학교로 개칭하고 정식중학교 인가를 받았던 것인데 일설에 의하자면 조정구는 당시 한민당 계열의 문교부 관리 출신으로 하귀중학원 인수시 단국중학교는 물론 단국고등학교, 단국대학교 부설 2년제까지 허가를 받아왔다고 하는데³⁹⁾ 48년 7월에 단국중학교라는 이름으로 제1회 졸업생을 배출하고 나아가 파군봉 쪽에 교사신축을 위해 설계도 하고 자재까지도 들여온 상황이었지만 4·3으로 모든 계획이 풍비박산 되어 버리는 아쉬움을 남긴다.

(2) 朝天中學院

하귀중학원에 비해 늦게 개교를 한 조천중학원⁴⁰⁾은 1946년 3월에 첫 입학생을 받아들였는데 해방 전에는 조천국민학교를 졸업하면 농업학교를 진학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중학원이 생기자 부락 주민들의 호응이 매우 컸었다. 따라서 1학년은 주,야간 각각 한 학급으로 주간은 50여 명 수준 그리고 야간은 100여 명에 가까운 많은 학생이 모여들었다.

39) 제주4·3연구소, 『개물사람이야기』, 『4·3연구회보』, 1989.12, p.18. 여기에 실린 증언은 여러 가지로 시사적이다. 증언자에 의하면 현재 서울 소재의 단국중학교 등은 제주도의 인가를 가지고 간 것이라 하는데 추후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다.

40) 이하 제주4·3연구소, 『이제사 말했수다.1』, 서울:한울, 1989, pp.47-77. 참조.

야간에는 국민학교 선생이나 면사무소 직원도 다녔으며 조천, 함덕, 신흥, 신촌은 물론이요 제주시 등지에서도 학생들이 왔다. 2학년은 주간에 50여명 규모의 A클래스, B클래스 두 학급이었으며 야간도 있었다. 연령이 높은 학생은 A클래스에 소속시켰으며 B클래스는 남녀 합반으로서 15명 정도의 여학생이 재학하고 있었다.

개교는 했어도 교실이 없어 면사무소 옆에 있는 면창고에서 수업을 했으나 다음 해에는 인원을 모두 수용하기 어려워 A클래스는 舊리사무소로 옮겨 분산수업을 하였다. 학생들이 공모하여 '우리가 앞으로 나갈 길은 하나다'라는 의미를 상징하여 만든 모표도 있었다.

교사는 7, 8명 정도로 모두 무보수 교사였으며 현복유는 중학원장으로 사학을, 영어와 독어는 김동환, 역사는 김석환, 화학과 물리, 그리고 수학은 김민학 등이 가르쳤는데 4·3의 좌익계 대표자였던 이덕구는 정치와 사회, 역사 그리고 체육 등 광범위하게 담당하였다. 이들 모두는 당대의 진보적인 지식인들로서 사회주의 성향의 민족주의 노선을 견지하고 있었다. 교재는 하귀중학원과 마찬가지로 프린트물이었으며 교사들이 등사해서 배부하였다. 조천중학원은 4·3사태의 여파로 5.10선거를 전후하여 강제 폐교를 당하였는데⁴¹⁾ 교사들의 정치적 성향과 관련된 조치였을 것이라고 이해된다.

D. 學校設立의 理念

교육사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러한 학교설립운동은 민족주의 교육운동과 연계가 되며 또한 민족주의 교육운동은 민족해방의 교육운동과 표리의 관계를 이룬다. 이와 같은 민족주의 교육은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근대 교육사의 특징이기도 하며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에서의 교육건설은 그 근처에 해방운동의 조류 속에서 교육이 조직되고 학교가 재건되어 간다는 운동론적인 과정이 흐르고 있다.

41) 현재의 조천중학교는 1950년 6월 설립인가된 조천초급중학교가 개편된 것이며 조천중학원과는 사실 관계가 없다고 할 수 있다. 한림중학원과 한림초급중학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여기에 민족주의 교육의 귀중한 역사적 특질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해방 후 교육변혁의 사상에 관한 한 어떤 독립국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민족해방 운동과 그 교육에 수반되어 거의 공통적으로 민족교육 전통의 재발견, 식민지 교육논리의 부정, 자신의 교육가치 창조라는 세 가지 논리가 흐르고 있다.⁴²⁾

제주도에서의 학교설립운동 역시 이러한 세계 교육사의 대하적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 교육시설이라는 물질적 관점을 척도로 할 때 이 같은 학교설립의 형편은 대단히 빈곤한 것일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교육의 가치나 참여자들의 의식을 기준으로 할 때 교육은 이제 마을사람들의 손으로 축조되고 있으며 바로 거기에 교육원리의 역사적 전환이 내재하고 있는 것이다.

2) 敎員行政

A. 敎員養成

어떻든 도민들의 자발적인 증력에 의해 학교는 많이 설립되었으나 이에 대처해 나갈 교사는 절대 부족한 형편이었다. 따라서 본토나 일본에서 교육을 받아 귀환한 인사들이나 징용에서 돌아온 학도병 혹은 지역내에서 교육을 담당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 임시방편으로 교사수급을 조절하였는데 특히 중등교육의 형편이 그러했다.

그들은 교육경험이 거의 일천한 상태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이런 이유에서 전공분야의 지식이나, 교육방법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많을 수밖에 없었고 전공과 관계없이 형편 닿는대로 교과를 담당하는 실정이었으며 교육과정도 학교 임의로 작성하는 실정이었다. 미군정청 학무국에서 각급학교 교과목 편제와 시간배당을 발표하긴 했으나 그것을 따를 수는 없는 형편이었으며 국어와 국사를 제외한 교과는 그 내용이 매우 빈약하였고 교과서는 절대부족인 형편이라 교사들이 작성한 등사물에 의존하는 실정이었다.

초등교육의 경우는 절대부족의 교사를 충원하기 위해 미군정 당국이 사범 학교에 강습과와 임시 초등교사 양성과를 부설하고 각도에 임시 초등교사 양

42) 小澤有作, 『民族解放と 教育運動』, 東京: 明治圖書, 1985, pp.31-69.

성소를 1개에서 6개까지 설치하였다. 제주도에서도 초등학교의 모자란 교원을 충원하기 위해 1946년 7월 20일 제주도 사범교육의 효시격인 「제주도입시 초등교원강습소」를 설립, 수업기간 3개월의 단기로 교원을 양성하였는데 11월 10일부터는 1년 과정이 되면서 「제주도초등교사양성소」로 개편되었다.

초기 강습소의 입소자격은 당시 중학교 4년 졸업 또는 수료자였으며 101명이 입소하였는데 교육과정은 소장의 재량에 의해 편성되었고 필요에 따라 현직교사를 위촉, 강의를 받거나 현장실습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사정에 대해 도총무국장 김두현은 국민학교의 소질을 향상하며 부족한 교사를 보충하기 위하여 초등교원양성소를 설치하여 제1회 졸업생 100여명은 벌써 국민학교 교단에서 교편을 잡고 있으며 제2회 입소생은 수강 중에 있으나 장차 사범학교로 승격하도록 중앙청에 교섭중에 있다고 하였다.⁴³⁾

교원양성소 수강자들은 소정의 교과과정을 이수하고는 제주 북국민학교에서 교육실습을 하였고 이어 검정고시를 치루어 합격이 되었을때 신원조사 후에 교사로 채용이 되었는데 1947년 8월 20일에 있었던 수료식에서는 50명여명이 과정을 마쳤다.⁴⁴⁾ 1948년 3월 3일부터 동 6일까지 3일간을 기하여 실시되었던 국민학교교사 검정시험에서는 원서접수기일을 2월 20일부터 28일까지이며 시험과목으로는 「국어과」, 「사회생활과」, 「과학과」, 「수학과」, 「체육보건과」, 「음악과」, 「미술공예과」, 「교육과」, 「가사과」를 정했었다.⁴⁵⁾

이렇듯 여러가지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성소 상황은 별로 개선되지 못한채 초급중학교 졸업자를 상대로 소양과목이나 현장실습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물론 문교부 주최 이동강습회 같은 것도 있었지만 그같은 빈약한 교사 양성체계로는 교원수급 균형을 유지할 수 없었던 관계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1개월의 동계 또는 하계강습과정을 통한 단기양성과정 등의 골육지책을 강구하였다.

1947년 1월에 개강했었던 동계학교는 1개월간의 강습을 통해 145명의 수강

43) 『濟州新報』, 제148호, 1947.1.26.

44) 『濟州新報』, 제220호, 1947.7.8.

『濟州新報』, 제238호, 1947.8.20.

45) 『濟州新報』, 제292호, 1948.2.6.

자를 배출하였는데 145명 중 현직촉탁교원이 99명이고 갑종중등학교 출신자가 46명으로서 수료증을 받은 갑종중등학교 출신자는 결원이 있는대로 채용하는 방식을 취했었다.⁴⁶⁾ 교사강습회는 비단 교사의 양성만이 아니라 교사재교육과도 깊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특히 이 시기의 교사재교육을 위한 교사강습회는 새로운 교육이론의 소개와 함께 반공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적 조치로서의 강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다.

이러한 서울의 동계대학 연구강습회에서 수강을 마친 4명의 교원을 강사로 하여 1947년 2월 22일부터 24일까지 북국민학교 강당에서 열렸던 동계대학 연구강습회의 전달강습회가 그 대표적인 경우이다. 강습과목들은 『민주주의 교육』, 『민족 위생교육』, 『과학교육』, 『사회생활 교육론』, 『미국교육』⁴⁷⁾ 등이었는데 이를 통해 미국의 실용주의, 진보주의 교육이론이 제주도에 소개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전달강습회에 참가했던 60명의 수강자들은 신생교육에 총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취지하에 3개월 봉급을 즉시 지불할 것, 최저한도의 생활을 보장할 것, 봉급은 월초에 지불할 것 등의 3개조의 요구조건을 문교부에 제출하였는데⁴⁸⁾ 당시 최저생활 보장도 어려웠던 교원들의 형편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어려운 교육형편에도 불구하고 1947년 7월에는 도내 국민학교 49개 교에 필요한 교사인원 100여명 중 50여명을 충원하면서 도학무당국은 아울러 校醫(양호교사)를 각 국민학교에 배치, 1개월에 1회씩 정기적으로 신체검사를 실시하겠다고⁴⁹⁾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계획의 무모함은 곧 당대 교원양성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그 문제의 심도를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B. 獎 學

이와 아울러 1947년 3월 4일 제주도 북군청 사무실에서 열렸던 국민학교

46) 『濟州新報』, 제153호, 1947.2.6.

47) 『濟州新報』, 제160호, 1947.2.24.

48) 『濟州新報』, 제161호, 1947.2.26.

49) 『濟州新報』, 제217호, 1947.7.2.

교장회의에서 시달된 사항을 보면 당시 교원들의 위상을 참고적으로 알 수 있다. 즉 「관공리가 고유의 사명을 완수함에는 불편부당의 중립태도를 견지고 수합이 긴요함으로 직원 중에 정당에 가입하거나 혹은 이면에서 정치운동에 참가하는 事가 없도록 유의하라」⁵⁰⁾는 내용인데 우리는 여기서 해방정국의 정치적 격랑에 많은 수의 교원들이 음으로 양으로 개입되어 있었음과 함께 제주도에서도 예외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회의에 道視學官을 비롯한 관계당국자들이 참석하였다는 기록을 토대로 할 때 단편적이거나 해방후 정초기 장학행정의 일단을 보게 된다. 1947에 들어 시학관이라는 명칭은 대신 장학관으로 개칭되는데 이 명칭의 변경은 종래 國策의 입장에서의 감독의 역할에서 벗어나 장학이라는 것이 교육 내용에 관하여 권장하고 지도하고 조언하는 독자적인 민주교육행정의 한 기능으로 인식받게 되었음을 시사하는 사안으로 제주도의 사정은 그러한 인식 전환의 과도기를 반영하는 내용이다.

그런가하면 1947년 5월 7일에 제주 북국민학교 강당에서 개최되었던 초·중등교장회의에서는 「현실적교육의 실천문제」, 「교육내용지도문제」, 「취학도의 고양문제」, 「실업교육진흥문제」, 「성인교육사업추진문제」 등에 관한 정부의 방침이 시달되었는데⁵¹⁾ 법정화된 교육정책을 실현하려는 공권적 작용으로서의 장학의 한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947년 8월 21일 도청회의실에서 열렸던 교장회의⁵²⁾에서는 공립중학교 월사금으로 50원, 사립중학교 월사금으로 80원을 책정하고 일년에 2회씩 내기로 결정하기도 하였다.

3) 社會教育

미군정기 교육정책 가운데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는 사회교육의 문제였다. 해방직후 12세 이상의 총인구 중 78 %가 문맹이었다는 기록에서 시사하듯이 학무국은 초·중등의 학교가 다시 재개됨에 따라 문맹자 일소를 위한 사회교

50) 「濟州新報」, 제165호, 1947.3.8.

51) 「濟州新報」, 제194호, 1947.5.10.

52) 「濟州新報」, 제240호, 1947.8.24.

육에 대단한 관심을 기울였던 것이다. 미군정은 문맹퇴치와 교화사업에 역점을 두었는데 그 목적은 조선인을 상대로 민주주의를 보급시키고 사회질서를 확립하자는데 있었다.

따라서 1945년 10월에 각 시·도에 成人教育協會를 발족시키고 1946년 1월 군정청의 문교부 직제에서 초등교육국, 중등교육국, 고등교육국, 편수국, 기상국 등과 함께 성인교육국과 문화교육국을 두어 2국에서 사회교육을 관장하게 하였다. 1946년 5월에는 公民學校設置要領을 제정하여 학령을 초과한 성인들을 대상으로 기초교육을 실시하였고 각종 강습소와 학원들이 공민학교로 개편되었다.

1947년 8월 제 1차 전국도서관회의가 개최되었으며 朝鮮圖書館協會가 발족되어 一郡一圖書館 설립을 목표로 도서관 증설운동을 벌였고 1948년 1월 高等公民學校 설치로 문맹퇴치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계속 확대되었다. 제주도에 있어서 사회교육적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도서관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여 설립 사무를 진행시키기는 1947년 10월 경⁵³⁾으로 초중등학교를 위한 순회문고 개설과 일반인들을 위한 문맹퇴치 프로그램 작성 등이 계획되었다.

이러한 계획들을 실현하기 위해 1947년 10월 18일 도서관후원회⁵⁴⁾를 조직하려다 연기되었고 11월 8일에 정식으로 발족⁵⁵⁾되었는데 회장에는 吳昶昕, 부회장에는 尹性鐘, 李學珩이었다. 도서관후원회가 조직되자 도서관 설립기금조성을 위해 모금활동에 들어갔다.⁵⁶⁾ 이 때 高漸祚 개인이 10만원을 회사하기도 했다. 이러한 활동과 국립도서관의 후원으로 도립도서관 창립을 기도하게 되면서 「제주도립도서관설립취지서」를 발표한 것은 1948년 2월 24일이었다.⁵⁷⁾

해방 직후 제주도의 사회교육에 대한 기록은 찾기가 어려운데 다만 학교설립운동에 부응하여 마을 단위로 그러한 유의 교육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은

53) 『濟州新報』, 제254호, 1947.10.6. 이 때 타이틀은 「도서관 설립필요 절실, 목하 설립사무 진행중」이라고 되어있다.

54) 『濟州新報』, 제299호, 1947.10.18. 도서관을 「일반민중의 문맹퇴치와 아울러 지식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회교육기관」으로 정의내리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55) 『濟州新報』, 제266호, 1947.11.8.

56) 『濟州新報』, 제291호, 1948.2.4.

57) 『濟州新報』, 제302호, 1948.2.26.

집작이 가능하며 다른 무엇보다 1945년 10월 고혜영 등 여성 5명이 주동이 되어 약 1년 동안 야간에 제주북교에서 펼쳤던 여성들에 대한 문맹퇴치교육⁵⁸⁾과 제주북교에서 이루어졌던 로고스회원들의 영어강습⁵⁹⁾ 등이 돋보인다.

또한 국민계몽의 일환으로 학생들에 계몽극이 공연되기도 했는데 1948년 1월 12일 겨울방학을 이용, 대정중학생 30여명이 2000여명의 관객들이 운집한 가운데 문맹퇴치계몽극을 공연하였고 동년 1월 9일부터 11일까지 한림에서고 한림용포리 진흥회 주최로 연일 인파가 집중된 가운데 계몽극이 공연되기도 하였다.⁶⁰⁾

성인교육협회는 육지부보다는 늦은 1947년 2월 15일에 결성되었는데 회장에 崔南植, 부회장에 金希洙, 玄景昊 이사에 安世勳, 韓麗憚, 趙大秀 의 17명이었는데 성인교육협회의 결성에 대해 여론의 관심은 비교적 컸던 것 같다.⁶¹⁾ 1947년 5월 7일에 개최되었던 초중등교장회의에서 성인교육사업추진문제가 집중 논의되었는데 『普選실사전 문맹국민이 한 사람도 없도록 각 교장은 실시지도 조력하여 오는 5월 10일부터 2개월간 성인교육을 실시하여 문맹국민 남녀를 의무적으로 60시간 이상 수강토록 할 것』⁶²⁾을 강력히 지시하였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인교육이라는 것이 사회교육적 차원에서 진행되었다기보다는 보통선거와 관련 정치적인 의도와 연계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밖에 제주도 民靑이나 婦女同盟 등이 1947년 1월에 결성되어 계몽운동을 주창하고 특히 민청은 결성되면서 시내청소와 도로수리 등 사회사업을 벌이기도 했었지만⁶³⁾ 정치적인 색조가 강하여 사회교육적 의미는 찾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제주도의 경우는 4·3사건으로 학교교육은 물론이요 사회교육 역시 계속성을 확보할 수 없었던 상황이라 본격적인 문맹퇴치교육은 1954년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56) 濟州道教育委員會, 『濟州教育史』, 1079. p.747.

59) 위와 같음

60) 『濟州新報』, 제285호, 1948.1.16.

61) 『濟州新報』, 제157호, 1947.2.16.

62) 『濟州新報』, 제194호, 1947.5.10.

63) 『濟州新報』, 제145호, 1947.1.18.

『濟州新報』, 제149호, 1947.1.28.

4) 4·3과 濟州教育

미군정 말기인 1948년 제주지역은 미군정과의 갈등과 대결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한 긴장은 해방후의 여러 정치적 상황과 연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참으로 복잡하고도 미묘해서 그 이유로 어느 하나의 사안만을 꼽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저변에는 제주도 특유의 전래적인 자치주의적 전통과 관련된 반외세적 요소가 다분하였음은 어느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다.

특히 해방공간의 학교설립운동은 자주교육적 측면에서 그러한 요소를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었음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다. 더욱이 일제시대 민족운동 세력으로서 활동하던 사람들이 해방후 교사로 편입하는 계기를 갖게됨에 따라 자치 의식과 민족 의식에 대한 강조는 민중계몽적 차원에서 학생과 일반인들 사이에 널리 수용되어 의식화와 조직화라는 차원으로 승화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반외세적 저항주의는 따라서 일본이나 미국이나 동일한 제국주의라는 인식아래 미군정과의 대치를 불가피하게 했으며 결국 1947년 3·1절 기념행사에서의 군정경찰의 과잉진압에 의한 6명의 사망사건으로 반미의식이 광범위하게 유포되는 계기를 맞게됨으로써 비극적인 4·3사태를 예비하게 되는 것이다.

1948년 4월 3일 새벽 1시 한라산과 제주지역의 89개 오름에 일제이 봉화가 오르면서 시작된 4·3은 이해의 편의를 위해 전·후반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을 것이다. 즉, 사태 지도부가 민족주의에 입각한 독자적인 노선을 견지한 가운데 미군정과 대결하여 단선, 단정투쟁과 같은 소기의 성과를 올리던 전반부와 이어 남한에는 대한민국이, 북한에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성립됨으로써 사태의 본질적 성격이 좌·우익의 대결양상으로 변질되던 후반부로 크게 대별할 수 있다는 말이다.

사태 초기는 목표를 지역적인 차원에서는 민중생존권의 방어를 위한 자위적 공격에, 정치적으로는 단선단정의 저지를 통한 조국의 통일문제 해결에 그리고 민족적으로는 민족해방에 둠으로써 민족자주화 투쟁임을 천명함으로써 민족주의적 자치노선을 견지하였는데 이러한 입장에는 역사적으로 제주도가 견지하고자 했던 자치주의적 분위기가 깊게 내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후 사태는 좌·우익의 대결 양상으로 변질되어 물고 물리는 아비규환의 장을 연출하게 됨으로써 일단 이 과정에서 제주교육의 기반이 초토화되는 국면을 맞게 된다.

우리는 여기서 4·3을 극좌모험주의와 폭동으로 규정하여 좌익의 폭동만을 부각시키거나 혹은 그 역으로 설명하려는 어떤 일방의 입장만을 옹호함으로써 그 본질을 왜곡시키기보다는 교육적 차원에서 일단 4·3이 가져다준 교육적 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교육적인 차원에서 볼 때 4·3은 다른 무엇보다 교육빈곤을 가속화시키는 결과가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좌·우의 이데올로기적 대립은 그 책임의 소재 문제와 상관없이 일단 그 자체로 비난받을 소지가 충분하다.

피해상은 당시 제주도의 전체부락 169개중 130여 부락이 참화를 입었고 직접적인 피해를 받은 가구만도 15,000여 세대에 이르렀다. 읍면별로는 제주시 3,162세대, 조천 1,327세대, 구좌 598세대, 애월 2,180세대, 한림 2,125세대, 서귀533세대, 중문 665세대, 안덕 933세대, 대정 717세대, 남원 1,572세대, 표선 966세대, 성산 311세대로 중산간부락이 많은 읍면일수록 피해가 더 컸다.⁶⁴⁾

당시 학교피해 상황에 대해서는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당시의 보도에는 국민학교 96개중 45개교, 중학교 11개교중 2개교가 회실되었고 이로 인해 2부제, 3부제 수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교원은 학생 3,4백명에 5,6인 비율밖에는 안 된다고 하였다.⁶⁵⁾ 제주도의 발표에서는 국민학교의 경우 북제주군 관내에서는 30개의 학교가 전소되고 1개교가 파손되었고 남제주군 관내에서는 43개교의 학교가 전소되고 2개교가 파손되어 당시 피해액은 대략 7억원으로 산출되었다. 또한 중학교 경우는 서귀중학교 1개교가 전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⁶⁶⁾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피해의 막대함을 알게 되는데 여기서 그 피해의 막대함이란 단순히 학교가 소멸 또는 파괴됨으로써 야기된 교육시설의 소실 그로인한 교육환경의 폐쇄화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동안 공

64) 夫萬根, 『光復濟州30年』, 文潮社, 1975, p.60.

65) 『自由新聞』, 1949.4.19.

66) 濟州道廳, 『濟州道勢要覽』, 1954, p.35.

동체적 강고성을 근간으로 하여 지역부락 단위 수준에서 학교를 둘러싸고 형성되어 있던 제주도 특유의 교육적 결속이 치명적인 타격을 받음으로써 야기된 정신적 생산(geistiges Produkt)의 몰락은 더 커다란 피해이자 손실이었다.

4·3의 이데올로기적 대립과 그로인한 피해는 그동안 제주인들이 학교를 둘러싸고 보여주었던 “행동의 진정한 공통성”을 상실시켜 버렸고 따라서 4·3 이후의 교육적 전개는 애초 학교 설립과 운영과정에서 보여주었던 지역주민들의 건강성은 상실된 채 단순히 고정된 교재를 강의하고 필기하며 암기하는 逆立한 교육단체(ein auf Kopf gestelltes Kollegium)로서 기능하게 된다. 즉 4·3 이후의 교육활동은 이제 지역단위 자치적인 공동체의 원리보다는 국가의 관료적 봉사 차원에서 행정원리가 우선하게 되었다는 말이다.

4·3의 초기 많은 수의 학생들이 교사를 따라 입산을 했다는 것은 어떤 이념적 동조라기보다는 제주도의 특유한 교육적 결속의 한 징표이며 학교를 둘러싸고 형성되었던 진정한 공통성의 한 예증이다. 즉 이념을 추종한 것이 아니라 선생님을 추종하였다는 말이다. 그러한 예증과 징표들은 일제의 그 혹독한 탄압 속에서도 끝내 간직해냈던 제주 교육사상사의 가장 핵심적인 미덕이었다. 결국 4·3은 그러한 미덕의 파괴이며 그 책임은 좌·우 양측 어느 누구도 면키 어렵다.

또한 4·3의 이데올로기적 대립과 그로인한 피해는 제주인들에게는 이념에 대한 공포를 불러일으켰고 그러한 공포는 나아가 분단이데올로기를 강화하고 내재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분단이데올로기의 재생산구조는 4·3을 비롯한 해방정국의 숱한 이데올로기 각축과 6·25를 계기로 하여 한국교육의 기본틀로 정착되는데 이로써 교육은 이념적인 면에 관한한 긴장될 수밖에 없었고 결국 그 어떤 편협성을 노정시킬 수밖에 없었다.

3. 結 言

미군정기 동안의 한국교육의 재건과정은 이후 한국교육의 방향설정에 긍정

적으로 그리고 부정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제주교육도 그러한 영향에서 예외일 수는 없었으며 오늘날의 제주교육은 공과에 관계없이 미군정기의 교육현실과 변화를 바탕으로 해서 모습지워졌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시기의 제주교육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오늘날의 제주교육은 물론 한국의 교육현실을 파악하는 데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미군정 기간의 제주교육에 대한 이해 없이는 오늘의 제주교육을 진단하는 일과 교육방향을 설계하는 일이 가능하지 않으며 또한 무의미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참 고 문 헌>

- 김봉옥(1987) 『제주통사』, 제주문화.
부만근(1975) 『光復濟州30年』, 文潮社.
고려대학교 아세아연구소(1967) 『아세아연구』.
오육환·최정실(1993) 『미군 점령시대의 한국교육』, 지식산업사.
제주4·3연구소(1989) 『4·3연구회보』.
제주4·3연구소(1989) 『이제사 말함수다,2』, 한울.
한림화(1987) 『제주바다의四季』, 한길사.
『自由新聞』(1949).
제주도교육위원회(1979) 『제주교육사』.
제주도교육연구원(1974) 『제주교육통사』.
濟州道(1954) 『濟州道勢要覽』.
『濟州新報』(1947, 1948).
小澤有作(1985) 『民族解放と教育運動』, 東京:明治圖書.
阿部洋 編(1987) 『解放後韓國の教育改革』, 韓國研究院.
Adams, D. K.(1972) *Education in Korea 1945~1955*,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Connecticut.